

▶ 매일 INDEX



4면

신미촌, 문화·예술·인권의
복합공간으로

2020년 6월 4일 목요일(문 4월 13일) 제2549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첫 수소충전소 국내 최대규모

도내 1호 완주 위치, 시간당 승용차 22대 충전 가능
2030년까지 24기 구축… 수소경제 대중화 첨병역할

전라북도 제1호 수소충전소가 전국 최대 규모로 완주에 들어서면서 도내 수소경제 대중화의 첨병 역할을 맡게 됐다.

도는 3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하대기장에서 전북 제1호 완주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 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송성환 도의회 의장,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등 총 10여 부처, 지자체, 국회와 민간기업 관계

자 100여 명이 참석해 시설을 살피고 수소 충전 시연 등을 했다.

완주 수소충전소는 총 58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규모인 시간당 110kg의 충전용량으로 건설됐으며, 1시간에 수소승용차 22대 또는 수소버스 3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되는 승용차, 버스, 트럭까지 모든 수소차의 충전이 가능하며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도는 완주를 시작으로 수소경제의 대표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24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전주 4곳을 비롯해 군산, 익산, 부안에 각 1곳씩 수소충전소 7기를 추가 구축할 예정으로 전북은 2021년에 모두 87기의 수소충전소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도는 수소 인프라 확충에 밸류춰 올해 보급 예정인 수소승용차 54대를 포함해 2030년까지 수소승용차 1만 4,000대, 수소버스 40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5월 말 현재 도내에는 수소승용차 130여 대가 출고돼 운행하고 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밸류춰 수소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북도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전북을 전국 제일의 수소 경제 도시, 대한민국의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현재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완주 수소충전소 준공은 도내 수소전 기차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보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내 수소전기차와 충전소 추가 보급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수소경제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라북도 내 첫 수소충전소 완공으로 미래 수소사회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와의 밀접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진정한 수소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원주=이중복기자



3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서 열린 전북 제1호 완주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송성환 도의회 의장,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컷팅식을 가졌다.

전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시행

군산·익산시 내달 3일부터

전라북도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전주시만 시행하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 종합검사)가 군산시, 익산시까지 확대하여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 익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기존 전주시를 포함해 3개 시가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포함되었고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된다.

자동차 종합검사가 추가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5월 기준 군산시 13만2,631대, 익산시 14만 1,544대, 총 27만4,175대이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4,996대의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방법은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주행과 유사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를 추가한 종합검사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확대 지역 검사대상 차량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7월 3일 이후인 차량이 7월 3일 이후에 검사를 받을 시 자동차 종합검사로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수수료는 정기검사 2~3만원, 종합검사 4~6만원으로 민간검사소별 요금은 접수대에 고지되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확대 지역 검사대상 차량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유호상기자

공직자 작은 생각의 전환 한발 앞선 적극행정 눈길

전북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66건 중 6건 발표

전북도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4월 16일

부터 5월 5일까지 전북도 각 실·국, 직속기관과 도 소속 공공기관,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66건의 사례를 접수해 도민 온라인 심사와 전문가 심사단의 2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경진대회 진출 대상을 확정해 열렸다.

이날 본선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나 우여환경으로부터 도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한 사례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불편 해소 노력 등 혁신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6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발표심사는 도 부문과 시군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도 부문에서는 ▲ 도민 누구나 쉽게 정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설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 '전북소통대로' ▲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신속한 지원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의

/유호상기자

전북 농림수산발전기금 농어가에 든든한 베풀목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이 농축산어기의 경영안정에 든든한 베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화훼소비 급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가 및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준 대출금 상환후 1년 경과 지원 규정 적용, 상시 채용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금 유통 확대, 전년도 사업실적 내역 제출 폐지 등'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치를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선제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호상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문화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NAVER TV ch.285 U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